

러시아어 동사 상의 범주적 속성: 유형론적 관점과 문법화를 배경으로*

홍택규
(한림대학교)

I. 유형론적 관점: 파생 vs. 굴절

본 연구는 러시아어 동사 상의 범주적 속성과 기능적 분포를 유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유형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전통적으로, 반복, 습관, 시작, 지속, 종결, 단순사실 등과 같은, “시간 내에서의 행위의 흐름과 분배의 다양한 양상”(Пешковский 1956: 105)을 표현하는 동사 상범주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슬라브어에 매우 특징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내에서의 행위의 흐름 및 분배’와 관련된 여러 특징들이 슬라브어권을 벗어난 다른 언어들에서도 동사의 활용형이나 조어적 수단에 의해 표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더욱이 최근의 몇몇 유형론적 연구들(Dahl 1985; Bybee, Perkins & Pagliuca 1994; Janda 2004 등)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러시아어 상이 (혹은, 보다 넓게는 슬라브어 상이) 범언어적으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을 내놓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막연히 러시아어 동사 상을 여타 언어의 상 범주에 비해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27-A00845).

가장 문법화된 예로 간주하거나, 혹은 범언어적 상 범주를 대표하는 사례로 취급하는, 다분히 관성적인 견해도 널리 퍼져있는데, 흥미롭게도 특히 슬라브어권 연구자들일수록 이러한 경향에 빠져있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적어도 ‘파생(derivation) vs. 굴절(inflexion)’의 기준만으로 문법화 단계를 살펴본다면, 러시아어 상은 순전히 문법적인 범주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어휘-문법적 범주라고 할 수 있음에도, 슬라브어권의 연구자들일수록 ‘슬라브어에 가장 특징적인 문법범주는 상’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그냥 일반화시켜 마치 러시아어가 범언어적 상 범주의 원형적 사례인 양 취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¹⁾

하지만 러시아어 상이 만약 ‘(일반적인 의미에서) 온전히 문법화된’ 동사범주라면, 시제나 서법 등과 같은 다른 동사범주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굴절에 의해 표현되어야 할 터이나, 실제로는 굴절보다는 파생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²⁾ 오히려 상 연구에 있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영어나 로만스어 계통의 언어들에서 상이 굴절에 의해 표현되는 흥미로운 역전현상이 보인다. 예컨대, 간단히 영어만 살펴보더라도, 진행상(progressive)은 ‘be + ~ing’의 형태로 동사어미의 굴절에 의해 표현되며, 로만스제어의 아오리스트(aorist), 임퍼펙트(imperfect) 등 역시 굴절에 의해 표현된다.

사실 이러한 ‘파생 vs. 굴절’의 기준과는 별개로 (물론 궁극적으로 이 기준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상 용례의 분포가 해당 술어의 어휘의미에 종속되어 있는 몇몇 사례만 보더라도 러시아어 상이 문법화의 단계 상 차라리 어휘-문법적 범주에 가깝다는 것은 쉽게 확인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가다 vs. 오다’ 그룹의 러시아어 동사어휘만 보더라도, 다른 언어들에 비해 그 용례가 심히 비대칭적임을 알 수 있다.

- 1)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러시아어 상이 어휘-문법적 범주에 해당한다고 해서 동사문법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법화라는 건, ‘어휘적 단계 → 어휘-문법적 단계 → 문법적 단계’로의 과정을 상정하는,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어휘-문법적 범주에 해당하는 단계일지라도 충분히 문법적인 범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이를 러시아어 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법을 사용해 표현한다면, 러시아어 상은 ‘어형변화(словоизменение)’의 범주라기보다는 ‘어형분류(словоклассификация)’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1) Я вызвал его по телефону, и он уже *приходит^{НСВ}/идёт^{НСВ}
ко мне. (Маслов 1948/2004: 73)

위의 예문에서처럼, 러시아어는 ‘오다’라는 인지적, 개념적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 맥락에서도, 그것이 반복적 상황이 아니라, 일회적인 지속의 상황일 경우에는 приходить가 아니라 идти형을 써야 한다. 흔히들 ‘오다’의 의미는 막연히 приходить로 다 커버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приходить 자체가 прийти의 불완료상임에도 ‘도착’이라는 내적 한계점까지의 도달과정, 즉, 지속의 의미는 표현하지 못하고, 반복의 의미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위와 같은 경우에 приходить 형태를 사용하는 실수는 상당히 고급수준의 외국인 화자와 러시아어 교수자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데, 정작 모국어화자 교수자 역시 특별히 상 연구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용 분포 상의 특이점을 포착하는 이 자체가 드물다.

이를 설명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식은 러시아어 прийти가 Vendler(1967)적 어휘의미 분류에 따른다면 도달술어(achievements)에 해당하는 까닭에, прийти가 지칭하는 사태(event)구조상의 범위는 주어진 내적 한계점에 도달하는 매우 짧은 점적인 순간만으로 국한되며, 따라서 이 동사에서 파생된 불완료상 приходить는 파생과정 자체의 속성 상 해당 내적 한계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정도일 터이다. 이를테면, 마찬가지로 도달술어인 영어의 reach가 다음과 같이 진행상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어색하다는 Vendler(1967: 104)의 지적과 동일한 이치에서이다.

(2) [?]I am reaching the top.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прийти는 ‘오(고 있다)’의 개념을 지칭하기보다는, 내적 한계점인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만을 지칭하는 ‘도착하다’의 개념을 지칭하며, 이 прийти에서 파생된 불완료상 приходить 역시 당연히 원래의 파생모어에 포획되지 않는 의미영역은 표현할 수 없을 터이므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나 지속의 의미는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설명방식 역시 러시아어 상적 용례의 특이성을 온전히 포착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왜 하필이면 러시아어에서 ‘오다’의 의미에 해당하는 불완료상 어휘소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도달술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어와 한국어의 ‘오다’는 위와 같은 상의 선택과 관련한 어휘의미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다음과 같이 얼마든지 진행상이나 지속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3) He is already coming to me.

(4) 내가 개 전화로 불렀어, 그래서 개 이미 나한테 오고 있어.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러시아어의 ‘오다’가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접두사(이 경우, при-)의 부착을 통해 파생되는데다, 러시아어의 경우 접두사 부착은 필연적으로 해당 어휘에 -보다 정확히는 해당 어휘가 표현하는 사태구조에- 무언가 어떤 내적 한계를 설정해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특히 그것이 한계상(delimitative)의 방식보다는, 순간상(punctive)의 방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어의 경우 파생모어 동사에 접두사를 부착시킬 시, Плу́нган(2000: 301-302)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주어진 행위의 전 과정을 균질하게 압축하는 방식으로 내적 한계가 설정되기보다는, 시작점이나 끝점 이 둘 중의 어느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춰 내적 한계를 설정하게 되는데,³⁾ 여기에선 접두사 при-의 특이성

3) 참고로 이때 접두사 부착이 주어진 행위의 시작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내적 한계를 설정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종결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내적 한계를 설정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접두사 부착 전 단계의 애초의 불완료상 동사가 잠재적으로 내적 한계를 가질 수 있는 행위(즉, 정점적telic 행위)를 표현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에 내적 한계 자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행위(즉, 부정점적atelic 행위)를 표현하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접두사 부착 전의 불완료상이 부정점적 행위를 표현하던 пойти, полюбить, узнать 등과 같은 어휘들은 각각 ‘어디론가 떠나는 시작 국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국면’,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즉, 깨닫게 되는 국면’을 표현하는 반면, 불완료상이 잠재적으로 정점적인 행위를 표현하던 написать, построить, прочитать 등과 같은 어휘들은 공히 종결국면에 초점을 맞춘다. 참고로, Comrie(1976: 45)는 ‘정점적 상황’을 “잘 한정지워진 종결점까지

으로 인해 ‘오고가는 행위’가 도착이라는 종결의 어느 한 순간만으로 집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완료상 прийти는 도달술어로 기능하게 되었으며,⁴⁾ 여기에서 파생된 불완료상 приходит 역시 상적 기능 영역이 반복의 의미만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 이해될 수 있다.⁵⁾ 사실 이러한 정황은 ‘도착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 예문 (1)을 한국어로 풀어쓴(paraphrase) 다음과 같은 문장이 어색하다는 사실에서도 한 번 더 확인된다.

(5) 내가 개 전화로 불렀어, 그래서 개 이미 나한테 도착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추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범언어적 일반성은, 이를테면, 위의 예문 (2)와 (5)에서 reach와 ‘도착하다’의 진행상, 지속상 용례가 어색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상 범주라는 게 그 자체로 어느 정도는 개별 언어와 무관하게 동사의 어휘의미와 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접사의 부착순서상으로도, 그리고 의미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도 상은 시제나 서법의 동사범주에 비해 동사 어근/어간의 어휘의미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Bybee(1985)의 유형론적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동사 상 범주를 이해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⁶⁾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그리고 이 종결점을 지나서는 더 이상 그 과정이 계속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 4) 물론 당연히, 위와 같은 조건들이 다 갖춰진다고, 접두사부착동사가 저절로 도달술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파생되는 동사가 도달술어가 될지, 아니면 прочитать, написать, построить 등과 같은 완수술어(accomplishments)가 될지는 애초의 동사 어근/어간이 표현하던 어휘의미와 해당 접두사 자체가 담고 있는 추상적인 시-공간 의미가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효과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 5) 이는 마치 도달술어 найти의 ‘파생형 불완료상’ находить가 지속의 의미는 표현하지 못하고, 반복의 의미만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 6) Bybee(1985)는 50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범언어적으로 동사 어근/어간에 접사가 부착되는 순서는 상-시제-서법의 순이며, 표현형태와 의미 사이의 언어적 도상성(iconicity)으로 인해 동사 어휘의미와 유관한 문법범주의 순서도 위와 같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파생방식의 상 형성과 굴절방식의 상 표현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어, 후자를 채택하고 있는 언어들은 상의 용법이 어휘의미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를테면, 도달술어 reach가 사용된 위의 (2)와 같은 용례도 Kučera(1983: 176)가 지적하듯 다음과 같이 ‘목표에의 근접(end-in-sight)’으로 이해될 수 있을 시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6) The climber is reaching the top.

다시 말해, 산이나 암벽의 정상에 막 이르러는 순간에는 도달술어라 할지라도 진행상으로 사용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유에서(비록 굴절이 아닌, 교착(agglutination)의 방식이지만) 지속상 {-고 있-}이 사용된 위의 예문 (5)도 다음과 같이, 이를테면, 화자가 직접 아파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차가 주차되고 있는 것을 볼 시에는, 허용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내가 개 전화로 불렀는데, (아파트 위에서 내려다보니) 막 도착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 ‘목표에의 근접’ 용례가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허용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서 늘 언어학자들 사이에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Novack-Jones(1992: 31)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영어에 비해 영국영어가 상적 제약이 강하다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은 감지된다. 이를테면, Comrie(1976: 47-48)는 아래의 예문 (7)은 (8)과 같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Novack-Jones(1992: 31)는 (7)과 같은 용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차이가 나게 된 이유를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의 상적 용례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7) (*John was reaching the summit when he died.

(8) John had almost reached the summit when he died.

참고로, 흥미로운 점은 Comrie 자신도 최근 저작(Комри 1997: 119)에서는 ‘목표예의 근접’ 용례를 차츰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는 영어 solve가 다른 언어들에서와는 달리 특이하게도 도달술어에 해당하는 관계로,⁷⁾ 예문 (9)와 같이 진행상 용례로 사용되는 게 어색하지만, 해당 문제의 답이 거의 다 나온 게 명확한 순간에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9) ⁷⁾I am solving this problem.

이렇듯 지금까지의 논의가 보여주는 것은 파생의 방식으로 상이 형성되는 러시아어의 경우 개별 어휘의 상적 용례에 대한 어휘의미적 제약이 큰 반면, 오히려 굴절의 방식으로 상이 표현되는 영어와 같은 언어의 경우 굴절이 갖는 문법화 단계의 힘에 따라 그 전체적 흐름이 비교적 술어의 어휘의미와 무관하게 진행상 표현이 가능한 방향으로 잡혀있다는 점이다.⁸⁾ 영어의 경우, 일견

7) 이를테면, 러시아어 решать/решить는 완수술어(accomplishments)여서 불완료상 решать는 ‘답을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이나 시도’를 지칭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반면(물론, ‘주어진 답을 얻었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지칭하고자 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완료상 решить는 ‘주어진 답을 얻었음’을 지칭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한국어 ‘(문제를) 풀다’ 역시 지속상으로 사용가능하다. 이처럼 같은 ‘풀다’의 의미를 전달할 것 같은 어휘소라 할지라도, 언어에 따라 상적 용례는 차이날 수 있는데, 러시아어의 경우 решить가 영어와 달리 도달술어가 되지 못하는 것은 при- 유형의 접두사가 부착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도 완료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탓도 크다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어 ‘풀다’는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주어진 답을 얻어냄으로써 내적 한계에 도달한 행위 둘 다를 동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해결하다’는 ‘풀다’와는 달리 훨씬 더 내적 한계의 도달이라는 점적 순간에 정향되어 있어, 영어의 solve에 가까운 상적 용례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는 꽤 어색하며, 어쩌면 화용적 맥락이 구체적으로 주어질 때만 ‘목표예의 근접’ 용례로 사용될 수 있을 듯하다.

8) 물론, 영어의 경우에도 “*He is knowing it”과 같이 절대적으로 진행상이 불가능한 용례들도 있지만(“He knows it”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이는 범언어적 상 일반이 그만큼 다른 동사문법범주에 비해 동사의 어휘의미와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무엇보다 영어의 ‘be + ~ing’ 구성이 지속상이 아니라, 진행상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영어의 ‘be + ~ing’ 구성은 그간 지속상이 아닌, 진행상의 표지로 문법화된 까닭에, 비정점적 상태(atelic states)를 나타내는 동사로는 아예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어 {-고 있-} 구성은 진행상이 아닌, 지속상의 표지에 해당하는 까닭에, 동일하게 비정점

도달술어들의 진행상 용례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덜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비교적 어휘의미와 무관하게 진행상 용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처럼 ‘파생 vs. 굴절’의 관점에서 언어들을 조금만 비교해보더라도, 러시아어 상이 문법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미약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II. 러시아어 상 문법화의 역사적 전개

어쨌든, 그럼에도 그간의 상 연구에서 러시아어를 범언어적 원형으로 간주하려는 관성이 강했던 것은 아무래도 상이 굴절에 의해 표현되는 동사체계에 서는 영어 진행상의 경우에서처럼 결핍 패러다임(defect paradigm)이 발생하게 되거나, 로만스어 非과거시제에서와 같이 상적 대립이 부재한 중화 영역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되었던 탓으로 보인다(Плунгян 2000: 294).⁹⁾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파생 vs. 굴절’의 기준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형태론적 상적 대립의 편만성(遍滿性)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적 상태를 표현하는 어휘더라도 “개 그거 알고 있어(cf. 개 그거 알아)”와 같은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사실 이는 또 다른 논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추후의 논의로 미루기로 하자. 참고로, 지속상은 주어진 행위를 그 상태/과정의 중간 국면이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언어적으로 모델링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반면, 진행상은 특정 행위를 그 내부의 시작, 중간, 종료의 국면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모델링하고자 할 때, 즉, (매 국면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역동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 9) 상이 해당 언어에서 파생에 의해 표현되는가, 굴절에 의해 표현되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적인 지표는 표제어로서 사전에 등재되는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소 상식적인 기준이 상의 범주적 속성을 간접적으로 잘 암시해준다. 이를테면, 러시아어의 경우 동사 상 형태는 몇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상과 불완료상 공히 별도의 어휘소(lexeme)로서 사전에 등재되는 반면, 영어의 경우 진행상 형태는 이러한 사전의 도움 없이 순전히 문법의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표제어로 등장할 필요가 없다. 물론, ~ing 형태의 현재분사도 별도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어 새로운 어휘로 파생된 경우에는 사전에 등재되게 된다(cf. 예컨대, ‘관심을 끌고 있는’이라는 의미의 현재분사 interesting → ‘재미있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interesting).

불 것인가에 따라, 문법화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여태까지는 형태론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범주의 기본적 속성에 대해조차 충분한 해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는 아무래도 언어학적 상 논의를 이끌어냈던 슬라브어중심주의가 여전히 세를 가지고 있는 탓도, 또 (완료상~불완료상 대립관계와 같은) 형태론적 상관범주의 이상적 원형을 유무대립(privative opposition)에서 찾고자 했던 Jakobson(1957/1971)의 유표성 이론의 영향력이 워낙 컸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간 러시아어 상을 포괄적인 유형론적 관점에서 조망해본 경험이 적었던 까닭에 있다 할 것이다.¹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도 어느 정도는 드러났듯이, 유형론적 관점은 언어학적 분석을 기존의 익숙한 방법론적 스크립트나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상의 원점에서 출발해보도록 하는 데 매우 유용한 틀이라 할 수 있는데, 러시아어 상의 문법화과정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도 이는 역시 유효하다 할 수 있다. 사실 러시아어 상의 문법화과정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결국 ‘완료상 vs. 불완료상’이라는 개념적, 형태론적 대립이 정립되는 과정에 대한 추적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관건은 정립의 역사적 전 과정을 과연 범주적 대립의 형성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또 이러한 정립의 과정을 어느 정도의 역사적 시간폭(time span)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Holden(1990) 등의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가 -아마도 슬라브어중심주의와 유표성이론의 영향 탓 때문에도- 범주적 대립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게다가 그 대립의 정립과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려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꽤 정교한 상이론을 입론한 것으로 평가받는 Маслов(1958/2004)의 불완료상화이론 역시 이러한 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슬라브어 상의 기원을 인구조어 단계에서 찾고자 했던 Мејє(1924/1951) 역시 상적 대립관계

10) 물론 그간 러시아어 상의 범주적 속성에 대한 해명이 미진했던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본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듯이, 러시아어 상 범주가 그 자체로 지극히 이종적(heterogeneous)이고 중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도 있다.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별다른 논증상의 유보 없이 인구조어의 presens와 아오리스트가 슬라브어의 불완료상과 완료상으로 계승되었다고 간주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¹¹⁾

그런데 I장에 제시된, 어휘의미적 제약과 관련된 상의 용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러시아어 상의 용법에는 ‘완료상 vs. 불완료상’이라는 범주적 대립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따른 여러 유산과 흔적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형태론적 상관대립범주로서 정립된 후에도 주관화(subjectification)(Traugott 1995; Traugott & König 1991)라는 문법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어, 문법적 대립의 정립이라는 전통적인 기준만으로는 러시아어 상의 범주적 속성을 제대로 포착해낼 수 없다. 게다가 여기에는 불완료상을 과연 하나의 문법소(grameme)라는 균질적 범주로서 간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Wittgenstein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과 같은 자질에 의해 하나로 묶인 여러 문법소의 묶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의 변수도 관련되어 있어, 그리 간단한 문제라 할 수는 없다. 어쨌든, 간단하게나마 이러한 요소들을 다 고려해, 보다 포괄적인, 상 범주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현재와 같은 상체계의 의미와 기능, 용법에 담기게 된 과정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선, 또 상의 범주적 속성과 관련한 그 함의를 온당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형론적 검토가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된 바 있던 Lyons(1977), Bybee(1985), Bybee, Perkins & Pagliuca(1994) 등과 같은 유형론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시제와 상이라는 동사범주 중 무언가 보다 기본적이고, 원형적인 범주는 시제가 아닐

11) Meier(1924/1951)는 고대그리스어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구조어에서 흔히 시제로 불리던 범주들도 어찌면 상적(aspectual) 자질에 의해 특징지워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인구조어의 presens는 ‘지속되고, 전개되는 행위’를, 아오리스트는 ‘행위 그 자체’를 표현했는데, 이러한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presens와 아오리스트가 실질적으로는 상에 의해 구분되었을 거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뒤에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때의 ‘상’이란, 유형론적 보편 개념인 aspect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슬라브어의 상 대립체계를 지칭하는 вид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구조어에서 시제범주로 불리던 presens와 아오리스트가 유형론적 보편의 측면에서 상적(aspectual) 의미를 전달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지만, 이것 자체가 현재의 슬라브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상(вид) 체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까 하는, 통상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범언어적으로 시제와 상 중에서 발생론적으로 더욱 원형적인, 기저적인 범주는 시제가 아니라 상이며, (따라서, 비슷한 이유에서) 심지어는 상의 문법소가 역사적으로 시제의 문법소로 전화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바 있다.¹²⁾ 사실 러시아어는 시상체계가 역사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체계로 확정되게 된 과정만 놓고 보자면, 마치 위와 같은 범언어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이를테면, 러시아어 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상 → 시제’의 전화과정보다는 ‘시제 대신에 상’이라는 기능적 보상작용에 주목한다),¹³⁾ 러시아어 역시 ‘상 → 시제’의 전화과정을 겪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상’이란 유형론적 보편범주로서의 aspect를 지칭하는 것이지, 슬라브어에서와 같이 완료상과 불완료상이라는 별개의 동사 어휘소가 쌍으로 대립되는 범주인 вид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본 논문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을 시에는 ‘상’은 보다 보편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aspect를 지칭하며, 특별히 논의를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대립이라는, 현재와 같은 슬라브어 상체계로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을 시에만 вид를 병기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 슬라브어 вид가 aspect의 한 유형이지만, вид가 반드시 aspect의 원형일 필요는 없다는 게, 본 연구의 기본적인 논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유의 용어법적 혼란은 그 역사가 꽤 깊어, 러시아어권

12) 이를테면, 위의 연구들 이외에도, 완료(perfect)의 표지가 과거시제의 표지로 전화된 사례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Kehayov(2002: 139-140)는 불가리아어에서 ‘결과상태적(resultative) 완료’의 표지가 상적 프레임을 잃어 ‘과거 일반’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최동주(1996) 역시 중세한국어의 과거시제 표지 {-었}이 ‘결과상태적 완료’ {-어 잇-} 구성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고대러시아어 완료구문 ‘быть의 현재형 + -И 분사’의 구성이 -И 분사형의 과거시제로 문법화된 과정도 이러한 범언어적 방향성에 부합된다(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는 홍택규(2008: 160-166)를 참조하시오). 사실 영어 완료표지 -ed가 단순과거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도 동일한 논리로 이해될 수 있다.

13) 차차 살펴보겠지만, 흥미롭게도 유형론적 연구들은 러시아어 상이 범언어적 상체계 내에서 갖는 위상을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Dahl(1985: 84-89)은 오히려 불어와 같은 로맨스어를 완료상 vs. 불완료상의 대립을 갖는 언어들의 전형적인 경우로, 슬라브어는 일탈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에서는 -이미 영어 aspect의 음차어인 аспект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경향의 슬라브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보편적인 상(aspect)’ 범주를 지칭하는 데 ви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용어법은 aspect라는 용어 자체가 러시아어 вид의 번역차용어였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거겠지만, 애초에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마치 러시아어 вид가 범언어적 상 범주의 원형인 듯한 부차적인 효과도 이끌어낸다. 영어권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Holden(1990)처럼, 보편적 상 범주를 지칭하고자 할 때는 소문자 aspect를, 현재와 같은 슬라브어 상 체계를 지칭하고자 할 때는 대문자 Aspect를 사용하는 이도 있다.¹⁴⁾

어쨌든, 많은 언어에서 명칭 상 시제 형태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상적인(aspectual)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물론 이 경우 시제표지 본래의 의미도 가지고 있을 터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시상적(tense-aspectual)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¹⁵⁾ 이는 결국 상이 거의 모든 언어에서 필수적인 동사범주로 기능하고 있음을 정황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Г.К. Ульянов의 가정대로(명칭 상 시제체계라 불렸던) 인구조어의 ‘아오리스트적 동사어간범주’와 ‘비아오리스트적 동사어간범주’가 실질적으로는 상의 관점에서 구분되었을 것(Немец 1962: 267)임은 충분히 추정가능하며,¹⁶⁾ 로만스제어와 고대러시아어에서 보이는 아오리스트, 임퍼펙트, 완료, 과거완료 등의 이른바 ‘과거시제 패러다임’ 역시 실질적으로는 보다 보편적인 의미의 상적(aspectual) 의미를 표현하고

14) 어쨌든 이처럼, вид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aspect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일종의 ‘용어전쟁’이라 볼 수 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지적, 지각적 프레임 역시 고착될 수밖에 없으며, 이른바 ‘보편’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우리가 지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라 할 수 있다.

15) 이러한 예들은 Bybee(1985), Bybee, Perkins & Pagliuca(1994)의 방법론적 가정에 따라 상의 문법소가 시제 문법소로 전화된 경우로 이해될 수도, 혹은 그냥 보다 통상적인 이해처럼 상과 시제가 미분화된 단계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16) 이는 곧 앞의 각주 11)에 서술된 Мейе(1924/1951)의 지적과도 통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상의 관점’이라 함은 당연히 유형론적 보편 개념인 aspect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참고로 언급하자면, 이 대목에서 Ульянов와 Немец는 보다 전통적인 슬라브어학자들의 용어법에 따라 ви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있었을 거라 추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¹⁷⁾

사실 이러한 상황은 ‘시제가 동사의 형태론적 범주로 문법화되어 있지 않은 언어는 꽤 있지만, 상은 거의 모든 언어에서 필수적인 형태론적 범주로 나타난다’는 Bybee(1985), Bybee, Perkins & Pagliuca(1994)의 데이터에서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예컨대, 현대표준중국어만 보더라도, 명시적(overt) 범주로서의 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적 처소(temporal location) 표현도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반면, le, guo, -zhe, zai 등과 같은 상 표지는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Janda 2004: 519-520). 기실 이러한 유형론적 분석결과는 종종 담화-화용론적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할 때가 있는데, 이른바 ‘내러티브적 시제’의 문제가 거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예컨대, 적어도 일상구어담화가 아닌, 내러티브적 서사텍스트에서는 과거시제와 현재시제가 지시의 측면에서 중화될 때가 많으며(다시 말해, 내러티브 내에서는 과거형을 사용하나, 현재형을 사용하나 별 차이가 없을 때가 많다)(Падучева 1996, 홍택규 2009 등), 그 결과 상의 변수가 텍스트 시간적 구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시간적 연쇄와 중첩과 같은 택시스(taxis)와 관련된 기능이 상으로 전이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을 ‘줍게’, 즉, 현재의 슬라브어 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체계로서만 이해하고자 하는 슬라브어중심주의적 견해에서는 상 체계 형성의 핵심을 조어범주인 동작류(Aktionsarten)가 문법범주인 вид로 전환되는 과정에 둔다. 이를테면, 이른바 완료상화가설을 지지하는 Кузнецов(1959)는 전치사에 기인하던 동사 접두사가 애초의 어휘의미를 잃고, 차차 보다 추상적인 시공간적 의미를 표현하게 되다, 결국에는 완료상의 보편의미

17) 거듭 언급하자면, 이러한 사례들은 일견 전통적인 슬라브어의 기준만으로 볼 때는 문법적 상으로서 충분히 문법화되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와 같은 슬라브어 상(вид) 체계를 기준으로 삼을 때만 그렇다는 말이지, 보편적 상(aspect) 개념을 토대로 파악할 때는 다른 논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문법화라는 게 그 자체로 상대적인 개념인데다, 위의 아오리스트, 임퍼펙트, 완료 등은 공히 굴절에 의해 표현되고 있어, 공시대와 통시대의 엄격한 이분법적 구분에 바탕을 둔 구조주의적 문법관에서 벗어나 문법에 대해 접근한다면(이를테면, Hopper(1987)의 ‘만들어지고 있는(emergent) 문법’ 개념을 생각해보라), 충분히 문법적 상 범주라 간주할 수 있다.

라 할 수 있는 ‘특정 시간적 한계 내에서의 해당 행위의 종결, 완결성’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접두사가 부착된 동사들은 완료상으로, 접두사가 부착되지 않은 동사들은 불완료상으로 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슬라브어상의 인구조어기원설을 강조하려던 Мейе (1924/1951)와 Г.К. Ульянов에 대한 반발로 제기되었을 거라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인도유럽어들에게도 동사접두사에 시공간적 추상적 의미가 발달한 사례(예컨대, 독일어의 동작류Aktionsarten)가 많음에도 왜 하필 그 언어들에서는 슬라브어에서와 같은 상 체계가 발달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사실 슬라브어 상 범주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접두사부착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는 I장과 각주 3)에서도 간단히 살펴봤듯이, 파생모어 동사에 의해 표현되던 사태구조에 잠재적 내적 한계를 설정해주었다는 점에 있을 뿐, 이를 곧바로 완료상 범주의 태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논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Маслов(1958/2004)는 같은 슬라브어 중심주의의 틀 내에서지만, 동작류(Aktionsarten)가 вид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접두사의 역할을 중요시했던 완료상화가설과는 달리,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오히려 부정태상·다회성의 의미를 표현하던 접미사의 역할이었다는 불완료상화가설을 내세운다. 다시 말해, 이미 슬라브조어 말기에도 접두사가 부착된 동사들은 일종의 내적한계성을 표현하는 결과구문적(resultative) 동작류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때의 결과적 구문들은 아직 완료상 구문으로는 전화되지 못한 채, 일종의 무표적 일반상(общий вид; 혹은 ‘단순상·공통상’) 구문으로 ‘결과나 내적한계에의 도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후자의 ‘내적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별도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기존의 부정태상·다회성의 의미를 표현하던 접미사를 가져다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표적 범주로서의 불완료상이 먼저 생겨나게 되었다는 가설이다.

이를 Маслов(1958/2004: 471-473)가 직접 제시하는 събърати와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보면, 이 동사는 원래 ‘내적한계의 실질적인 도달’의 의미(현대의 기준으로는 ‘собрать’)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의미(현대의 기준으로는 ‘быть в процессе собирания’) 자체도 표현하고 있었는데, 후자를 특별히 구별해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 기존에 존재하던 부정태-다회성(неопределённо-многократность)의 모음교체 모델(이 경우 접사 -и-)을 가져다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부정태-다회성의 의미와 함께 과정의 의미도 표현하게 되었던 *събирати*가 차차 불완료상으로 개념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반복의 의미를 표현하던 부정태-다회성의 접미사가 어떻게 지속이나 과정의 의미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되는가의 문제일 텐데, 이를 Маслов는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현재시제 맥락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확장이 아무래도 용이했을 거라는 암묵적인 가정에서 출발해 풀어간다. 즉, 현재시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화자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즉,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전개되는 문법범주이므로, 부정태-다회성을 표현하던 모델이 지속-과정의 의미까지 포괄하는 데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을 제공해주었을 거라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배경에서 Маслов(1958/2004: 472)는 *събирать*와 같은 형태에서 불완료상이 제일 먼저 탄생했을 거라고 간주한다.

Маслов(1958/2004: 472-473)는 이미 슬라브조어 단계에 (비록 어휘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이긴 하지만, -다시 말해, 접두사가 부착돼 사태구조 내에 이미 내적한계의 의미가 설정되어 있는 이른바 ‘한계성동사’에서 -) 이러한 불완료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다만 이 불완료상이 범주적으로 대립되었던 것은 현재와 같은 완료상이 아니라, 무표적 일반상(단순상/공통상)이었다는 점만 차이가 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이 시기의 *събирать*와 *събереть*의 관계는 마치 영어의 진행상 *to be collecting*과 단순상 *to collect*의 관계와도 유사하게 불완료상이 유표적 범주로서(‘내적한계의 도달’과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의미가 미분화된 상태로 표현되던) 무표적 일반상에 대립되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때만 해도 불완료상은 아직 수의적·선택적(*facultative*) 범주여서, ‘내적한계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일반상 *събереть*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었는데, 점차 불완료상 *събирать*이 그 용례를 넓혀가는 반면, 일반상 *събереть*은 차차 지속이나 과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게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상이 비로소 완료

상으로 전화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¹⁸⁾

결국 Маслов(1958/2004)는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대와는 달리 완료상보다는 불완료상이 먼저 발생했으며, 이러한 불완료상이 탄생할 수 있었던 어휘적 여건이 바로 이미 접두사가 부착돼있던 *събырати*와 같은 한계성동사그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적인 성격의 ‘불완료상 vs. 완료상’ 대립이 다른 동사그룹들로까지 퍼지게 된 경로를 상정하는 방식 역시 주목할 만하다. Маслов(1958/2004: 473-474)는 ‘*събырати/събирати*’ 그룹 다음으로 불완료상이 생겨나게 된 어휘그룹으로 *дати, лиšити, пасти, бодѣ* 등과 같이 그 자체에 접두사가 부착돼있지는 않지만, 어휘의미상 사태구조 자체에 내적인한계를 가지기 쉬운 동사들을 제시한다.¹⁹⁾ 다시 말해, 위의 동사들은 비한계적 용례가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주다’, ‘빼앗다, 잃다’, ‘떨어지다’ 등과 같은 어휘의미에서도 보이듯이, 어간 자체가 담고 있는 어휘의미구조의 특징상 별다른 맥락이 없이도 한계성동사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며,²⁰⁾ 바로 이런 이유로 ‘*събырати vs. събирати*’ 모델에 준해 부정태-다회성 접사를 이용하여 *дајѣ(давати), лиšати, падати, бывајѣ* 등과 같은 불완료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²¹⁾ 이 동사그룹에서 이렇게 형성된 ‘불완료상 vs. 일반상’의 대

18) Маслов(1958/2004: 473)는 일반상이 지속-과정의 의미로 사용될 수 없었던 주된 환경으로 구체적-실제적 현재시제의 맥락을 든다. 다시 말해, 이제는 *събереть*을 발화시점에 화자의 눈앞에서 실제로 지속되고 있는 사건을 지칭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상이 ‘**пастьеть събырати*’의 구조와 같이 행위의 시작, 지속, 종결 등의 국면을 표현하는 술어와 결합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역시 일반상이 비로소 완료상으로 전화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한다.

19) Маслов(1958/2004: 473-474)의 용어를 직접 따르자면, 전화적(эволютивный), 비약적(мутативный) 어근그룹의 동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20) 이를테면, ‘주다’, ‘빼앗다’, ‘떨어지다’ 등과 같은 어휘들은 (동사의 어휘의미구조 자체에 내적인한계를 담고 있지 않아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되면 해당 행위가 얼마든지 지속가능한) ‘가다’, ‘생각하다’ 등과 같은 어휘들과는 달리, 하나의 행위로서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어떤 내적인한계에 도달하는 국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1) 참고로 *быть*가 현대러시아어에서는 불완료상으로 분류되지만, 고대러시아어에서는 적어도 (내적인한계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뿐만 아니라, 내적인한계의 도달 자체도 표현할 수 있었던) 무표적 일반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황의 흔적은

립이 당연히 다음 단계에서는 ‘불완료상 vs. 완료상’의 대립으로 전화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렇게 확장돼가던 부분적 수준의 ‘불완료상 vs. 완료상’의 대립이 전체적으로 완성된 단계를 Маслов(1958/2004: 474)는 *dělati, rьsati* 그룹의 동사에서 본다.²²⁾ 이런 유형의 접두사미부착동사들은 특별한 문맥적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한계적 용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어서(이를테면, ‘-하다’, ‘쓰다’ 등과 같은 동사들은 에너지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행위를 지칭한다), 애초부터 ‘내적한계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의 의미를 따로 구별해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을 터이고,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그룹의 동사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을 거라는 가정이다. 이 유형의 동사들은 대신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던 한계성의미의 접두사부착동사들(이 경우, 예컨대 *сьдѣлати, парьсати* 등)과 새로이 상적 연관을 맺게 됨으로써 상적 대립 속으로 편입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충분히 안정화된 ‘*сьбырати/сьбирати*’, ‘*pasti/padati*’ 유형의 ‘완료상 vs 불완료상’ 대립을 배경으로 ‘*сьдѣлати vs. дѣлати*’, ‘*парьсати vs. рьсати*’ 등과 같은 상적 대립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설명으로, 사실 이는 상 범주 형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완료상화 가설과는 판이하게 차이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Кузнецов(1959) 등을 필두로 한 완료상화가설에서는 슬라브어 상 형성에 있어 접두사부착이 지배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 Маслов(1958/2004)의 불완료상화 가설에서는 접두사부착은 상 범주의 형성 및 확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부차적인 과정일 뿐이다.²³⁾

몇몇 현재의 용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현대러시아어 불완료상 미래시제가 ‘*быть*의 현재시제변화형 + 불완료상동사의 기본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든지(다시 말해, *быть*의 현재시제변화형은 여타의 다른 완료상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시제의 의미를 표현한다), 러시아어 가정법 소사 *бы*가 고대러시아어에서 가정법을 구성하던 (완료상) 3인칭단수 아오리스트의 흔적이라든지 등의 사례가 그것이라 할 수 있다.

22) 단 여기에서 *imperfectiva tantum, perfectiva tantum* 그룹의 동사들을 논외로 함은 물론이다.

23) 사실 이러한 불완료상화가설에서는 ‘완료상 vs. 불완료상’의 대립으로 굳어진 ‘접두사

이처럼 Маслов(1958/2004)의 가설은 기존의 완료상화가설의 논리적 공백들을 잘 메우고 있지만,²⁴⁾ 여전히 슬라브어 상 체계 특유의 상적(видовой) 대립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슬라브어 상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조망하고, 또 그에 따라 상의 범주적 속성을 포착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 이를테면, Маслов(1958/2004)는 부정태-다회성 접사가 ‘내적인 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던 여러 배경적인 여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술했듯이 현재시제맥락이 이러한 의미적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매개적 환경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점만 지적한다. 하지만, 예컨대 고대러시아어 과거시제패러다임에 반복과 과정의 의미를 함께 표현할 수 있었던 임퍼펙트(imperfect)가 새로이 등장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임퍼펙트의 시상적 용례가 불완료상이 범주적으로 안정되는 데 하나의 인지적 배경을 제공했을 거라는 점을 추론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해, Маслов(1958/2004)는 ‘슬라브어의 상(вид)’이라는 개념들을 벗어나지 않은 채, 결국 부정태-다회성 범주가 상적 대립의 정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리고 게다가 그 대립의 정립과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대에 일어났을 거라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Holden(1990)은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잘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슬라브어 상(вид)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유형론적 보편의 상(aspect)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와 같은 슬라브어 상적 대립이 형성되고, 또 범주적으로 안정화되었던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그는 슬라브어 상이 형식적, 대립적 범주로 확립되는 과정의 시간폭을 Маслов(1958/2004)보다는 훨씬 더 넓게 잡아,

부착동사 vs. 접두사미부착동사’의 사례가 엄청 많다는 점이 논증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Маслов(1958/2004: 474-476)는 이를 향후에 활발히 일어난 ‘탈접두사화(депрефиксация)’ 현상으로 설명한다.

- 24) 이를테면, 슬라브어 상 범주 발달과정에서 일반상을 상정했던 점, 그리고 그 일반상을 계승했던 완료상이 현재와는 달리 무표적인 범주였을 거라는 가정 등은 유표성이론의 관점에서 꽤 흥미로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와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과거에 불완료상이 뭔가 더 유표적인 항목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데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범주적 위상이 현재와 같이 바뀌게 된 것은 유표성이론 내부적으로 차후에 ‘유표성 역전(markedness reversal)’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 설명될 사안이다.

(Kuryłowicz의 견해를 따라) 인구조어 말기나 (발트-)슬라브조어 초기에 마치 ‘사역성, 순간성, 시작성 vs. 상태성’의 대립과 같은 상적(aspectual) 쌍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데서 슬라브어 상 범주의 형성의 기점을 잡는다. 이를테면, 다음 (10)의 예들과 같이 접사부착이나 어근 내 모음교체 등의 방식을 통해 표현되던, ‘사역성’, ‘시작성’, ‘상태성’ 등과 같은 의미태(diathesis)의 하위요소들이 느슨하게나마 상적(aspectual) 쌍을 이루는 어휘적 대립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 (10) bud-ě-ti vs. boud-i-ti ‘깨어있다(상태) vs. 깨우다(사역)’
 sed-ě-ti vs. se(n)d-ti ‘앉아있다(상태) vs. 앉다(시작)’
 dvig-a-ti vs. dvig-nō-ti ‘움직이다(상태-활동) vs. 움직이(게 하)다(시작)’
 nos-i-ti vs. nes-ti ‘운반하다; 비한정성-부정태 vs. 한정성-정태’

(Holden 1990: 137)

물론 여기에서 ‘상적(aspectual) 쌍’이라 함은 현재의 슬라브어에서와 같은 (좁은 의미의) 상적(видовой) 대립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조어 단계부터 존재하던 상태성의 표지 ě(예 bud-ě-ti, sed-ě-ti 등), 사역성의 표지 o...i.(예 toč-i-ti ‘날카롭게 하다’ 등), 시작성의 표지 n(예 sta(n)-ti ‘일어서다’ 등) 등이 제한적인 어휘군에서나마 위와 같은 상적 쌍의 맥락으로 편입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을 슬라브어 상 범주 형성의 기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 표지들은 보다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능동, 피동, 사역 등과 같이 주체와 행위 사이의 사건구조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태(diathesis)의 표지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역시 ‘시간 내에서의 행위의 모양’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로 상성(aspectuality)의 표지로도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nos-i-ti vs. nes-ti’와 같은 이동동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에는 이러한 상성의 표지들이 대립적이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잉여적이었다면, 인구조어 말기나 (발트-)슬라브조어 초기에 와서는 상태성을 하나의 대립항 목적으로 하여, ‘사역성, 순간성, 시작성 vs. 상태성’과 같은 상적 쌍들이 미진한 형태로나마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게 Holden(1990)의 요지이다.²⁵⁾

이러한 ‘상적 쌍’의 맹아가 보다 형식적인 범주로 정착하게 된 계기를

Holden(1990)은 상태성을 보다 더 문법적인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된 임퍼펙트의 등장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위에 언급된 상태성 접사 *-ě-*, *-a-*가 (시그마 아오리스트의 시그마가 과거시제 표지로 일반화되었던 과정과도 병행적으로) 예컨대 “*sed-ě-x-u* ‘나는 앉았다’”와 같은 형태로 시그마 아오리스트의 시그마와도 결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차차 이 ‘어간형성소 *-ě-/a-* + 새로운 과거시제 표지 *-x-*의 결합’이 더 지배적이 됨에 따라, 이 구조가 이를테면 명사에서 파생된 행위를 표현하는 *веровати*나 부정태동사 *nositi* 등과 같이 비교적 상태성에 가까운 의미를 표현하던 다른 동사어근들에 의해서도 수용되었으며, 마침내 이 구조 내 어간과 접사 사이의 경계가 재분석됨에 따라 새로운 굴절-파생 단위 **ě-x-/*a-x-*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Holden 1990: 138-139).²⁵⁾ 결국 이렇게 새로이 재분석된 단위 **ě-x-/*a-x-*는 *ver-ova* a-x-u*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어간형성접사에 부착될 수도 있었으며, 그럼으로써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상태성/지속성 vs. 비상태성/비지속성’과 같은 (넓은 의미의) 상적(aspectual) 대립을 표현하기 위해 시그마 아오리스트와 ‘느슨한 의미의’ 상적 쌍을 이룰 수 있었다는 설명(Holden 1990: 139)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이 확립됨으로써, 새로이 정립된 굴절-파생 단위 **ě-x-/*a-x-*가 애초의 상태성 술어와 결합할 시에는, 일종의 ‘이중적’ 상태성 표지처럼 나타나게 되고, 이 이중의 상태성 표지가 마침내 이를테면 “*sed-ě*a-x-u* > *sed*ěa-x-u* ‘나는 앉았다/앉아 있었다’”의 사례와도 같이 임퍼펙트 형태소 *-ěa-/aa*로 다시 재분석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Holden 1990: 139).

이처럼 Holden(1990)유의 접근에서는 Маслов(1958/2004)의 연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불완료상화, 완료상화에 따른 ‘불완료상 vs. 완료상’의 범주적 대립 자체의 정립보다는, 인구조어 단계 이래로 지속된 상태성 범주의

25) 참고로, Holden(1990: 137)은 이와 같은 ‘상적 쌍’의 기원을 인구조어 단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의 근거로 슬라브어와 베다어의 접사형성이 매우 닮았다는 점을 든다. 아울러 이러한 유형의 ‘상적 쌍’이 슬라브어에서 상을 표현하는 지배적인 방식이 되지 못했던 까닭은 차후에 이러한 유형의 표현이 슬라브어에서는 발트어에서와는 달리 현저히 덜 생산적인 방식이 되었기 때문일 거라고 시사한다.

26) 여기서 *는 새로이 재분석된 단위임을 지칭한다.

꾸준한 확산과 그에 따른 (넓은 의미의) 상적(aspectual) 대립의 형성(이 경우, 임퍼펙트 vs. 아오리스트)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불완료상 vs. 완료상’ 대립이 생겨나게 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통상 완료(perfect) 1-분사가 예전의 아오리스트, 임퍼펙트의 시그마로부터 정규적인 과거시제 표지로서의 역할을 인계받게 된 일련의 과정과 연관돼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Holden 1990: 147-148). 그 과정은 Holden(1990: 147-148)의 정리를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대러시아어에서 완료는 14-15세기에 걸쳐 연사(copular; auxiliary)를 3인칭에서 시작하여 차차 2인칭과 1인칭에 이르기까지 잃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러한 과정과 병행적으로 아오리스트와 임퍼펙트는 자신의 ‘사건의 연쇄적 서술(sequencing)’/‘전경화(foregrounding)’ 기능에서 이 연사가 없는 완료와 점점 더 혼동되게 되었으며, 급기야 16세기경에는 아오리스트와 임퍼펙트가 그 빈도에 있어 문어적인 용례로만 국한될 정도로 매우 약화되었고, 결국 17세기경에 이르러 이 과거시제형태들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형태론적으로 그냥 과거시제 형태소로 재분석된) 예전의 완료 1-분사로 대체되었으며, 동사 어간은 완료상/불완료상 대립의 관점에서만 구별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오리스트, 임퍼펙트의 기능 변화와는 별도로 완료는 왜, 어떤 과정을 통해 본래의 기능을 잃고, 단순한 과거시제의 표지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역시 문제가 될 터인데, 그 이유를 Holden(1990: 147-148)은 첫째 완료의 기능 약화 및 변화는 다른 인구어들의 역사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이를테면, Dahl(1985: 139)도 지적하고 있듯이, 불어와 다른 로만스어들에서는 완료가 일제히 사라졌다),²⁷⁾ 둘째 특별히 슬라브어에 국한시켜 이야

27) 참고로, Holden(1990: 147)의 인용맥락과는 다소 달리, Dahl(1985: 139) 자신은 불어를 비롯한 로만스어에서는 애초의 완료 의미가 사라지며, 그 자리에 완료상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이와 꽤 다르다. Dahl(1985)은 범언어적 완료상(perfective aspect)과 불완료상(imperfective aspect)의 개념을 꽤 넓게 잡아, 사실 많은 언어들에 이 대립범주 속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확장된 이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Dahl(1985)은 심지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 등과 같은 슬라브어에 나타난 ‘완료상 vs. 불완료상’의 상적 대립을, 범언어적 ‘완료상 vs. 불완료상’의 대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경우로 간주하고 있다.

기하자면, 인구조어의 상태성이 슬라브어 상으로 확장·확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슬라브어 완료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 상태성이 인구조어단계에서는 잉여적으로 표지되었고, 따라서 단지 다른 비상태적 사건들을 바라보는 일종의 대안적 방법으로 선택되었다가, ‘이제는’ 동사 형태론의 문법적 패러다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임퍼펙트로까지 그 위상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완료성(perfectness)’의 경우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슬라브어에서 ‘무언가를 보다’, ‘집을 짓다’ 등과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정점적(telic) 결과상태의(resultative)’ 동사들은 그 자체의 어휘미적 속성으로 인해 과거시제의 맥락에서 사용될 시에는 특별한 완료의 굴절형태 없이도, 주어진 행위의 종료 후 결과가 지속되는, 이른바 ‘완료와 같은’ 효과를 함의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모든 동사들이 (이른바 결과상태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범주라 할 수 있는) 정점적 아오리스트형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그러한 잉여성은 훨씬 더 증대되었으며, 결국 점차 ‘완료상 vs. 불완료상’이라는, 어간분화에 따른 상적 대립이 더욱 공고해짐에 따라, ‘주어진 시점에서의 결과·효과의 유효’라는 애초의 완료가 표현했던 의미 역시 그 지평이 일종의 ‘행위의 종결에 따른 논리적 함의의 하나’라는 주관적 뉘앙스와 같은 층위로 옮겨지게 돼, ‘완료상 vs. 불완료상’의 대립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Holden 1990: 147-148).

지금까지의 설명에서도 드러났듯이, 결국 Holden(1990)은 인구조어 시기 이래의 상태성 범주의 지속적 확산, ‘임퍼펙트 vs. 아오리스트’의 상적(aspectual) 대립의 형성, 완료 본래적 의미 및 기능의 약화, 고대러시아어 과거시제 패러다임의 붕괴 등의 굵직한 요인들이 함께 역사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축적되고, 상호작용한 결과, 현재와 같은 ‘완료상 vs. 불완료상’의 상적 대립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태성 범주의 확산, ‘임퍼펙트 vs. 아오리스트’의 대립 등과 같은 전자적 요인들이 러시아어 상의 역사적 전개의 구조적 윤곽을 잠정적으로나마 결정해준 변수라고 한다면, 완료의 약화, 과거시제 패러다임의 붕괴와 같은 후자적 요인들은 일종의 기능적 재조정의 변수로 간주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유형론적으로 꽤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앞에서 언급된, 임퍼펙트 형태소의 문법화과정에 나타난 상태성 형태소의 반복적 융합(fusion; 예컨대 “sed-ě*a-x-u > sed*ěa-x-u”의 사례)은 Holden(1990: 139)도 간단히 지적하고 있듯이 동사 상을 표현하는 과생/굴절 형태소가 동사 형태론에서 어근-어간의 의미에 가장 유관하다는, 다시 말해 ‘상이 시제나 서법 등의 여타의 동사범주와는 달리 동사의 어휘의미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Bybee(1985)의 가설을 다시 확인해줄 뿐만 아니라, 필자가 일련의 연구(홍택규 2005; 2006; 2008)를 통해서 제안한 바 있던, ‘상 → 시제(→ 서법)’이라는 주관화적 문법화에 따른 범주적 변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이를테면, 인구조어 상태상 표지 ‘-ě/-a-’가 고대러시아어 과거시제 임퍼펙트형태 ‘-ěa(-x)/-aa(-x)’로 전화된 과정을 생각해보라).²⁸⁾

하지만, 고대러시아어 과거시제 패러다임의 붕괴에 따른 기능적 재조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슬라브어가 현재와 같은 상적 대립체계를 가지게 되었던 과정에서 특이했던 점은 바로 위에 언급된 ‘상(aspect) → 시제’로의 범언어적 과정과 함께, ‘시제(보다 엄밀히는 시상체계) 대신에 상(вид; 좁은 의미의 슬라브어 상체계)’이라는 슬라브어만의 독특한 과정이 중첩되어 일어났다는 데 있었다는 사실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기실 이 후자의 과정은 일종의 재문법화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상대적인 시간순서상으로는 전자보다 꽤 나중에 발생하지만, 그 시간대가 전자와 조금은 겹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동사 상이 다른 언어들에 비해 특히 슬라브어에서 ‘현저한(salient)

28) 물론 여기에서 ‘상 → 시제’의 범주적 변이를 논할 때 ‘시제’ 개념과 관련하여 필자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고대러시아어 과거시제 패러다임에 나타난 명목상의 명칭이다. 다시 말해, 임퍼펙트, 아오리스트와 같은 용어는 내용적으로는 시상적(tense-aspectual) 개념을 담고 있지만, 전통적인 용어법적인 관례상 시제 범주라고 지칭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상 → 시제’라는 범주적 변이라는 틀을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바 역시, 흔히 시제범주라고 이해되는 많은 범주들이 그 역사적인 근원을 볼 때, (넓은 의미의) 상(aspect) 범주에서 기인한 바 크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주관화적 문법화가 더 진행된다면, (여기에서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지만) 각주 12)에 지적한 바와 같이 ‘완료’의 표지가 ‘단순과거’의 표지로까지 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주'로 기능하게 되는 연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유력한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모습의) 슬라브어 상은 기존의 과거시제 패러다임이 붕괴·단순화되면서 새로운 기능적 보상작용으로 (재)문법화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새로운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여타의 언어들에 비해 동사범주 내에서 특별히 현저한 범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면 다소 추상적인 가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겠지만, 사실 비슬라브권의 언어들에서는 동사 상이 비교적 상 본래의 내재적 기능(예컨대, 행위의 시작, 지속, 종결, 반복 등과 관련된 표현)에 충실한 반면, 슬라브권의 언어들에서는 역설적으로 상이 본래의 내재적 기능을 벗어나, 다양한 담화·화용적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데도 매우 유력한 가설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필자가 일련의 연구(홍택규 2005; 2006; 2008)를 통해 보여 주었듯이, 러시아어 상은 주관화라는 기능적 변이를 지속적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III. 공시적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어 상의 문법화과정은 ‘불완료상 vs. 완료상’이라는 범주적 대립국면의 구체적 형성시점만이 아니라, 인구조어단계 이래로 진행된 역사적 전 과정을 고려해야 온당하게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법화 진행과정의 역사적 유산과 흔적은 이른바 ‘축적과 전개’의 형태로 현재의 상의 모습과 기능에도 반영되어 있어, 상의 범주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도 주요한 열쇠가 된다. 다시 말해, 러시아어 동사 상은 그 기능과 용례에 있어 ‘불완료상 vs. 완료상’의 문법적 대립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따라 비교적 ‘균질한 행태’를 보이기보다는, 해당 동사의 어휘의미적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용례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 이 점이 그간 진행되고 축적되었던 문법화의 역사적 과정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시도 vs. 실현’, ‘행위의 과정 vs. 전체성’ 등과 같은, 러시아어 상이 표현하는 하위의미만 살펴보다라도, 모든 동사에 이러한 의미적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Маслов(1948/2004: 73)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예컨대 видеть/увидеть, благодарить/поблагодарить, являться/явиться 그룹은 ‘경향, 시도 vs. 성공, 실현’이라는 상의 하위대립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I장에서도 자세히 논의된 바 있던) приходиться/прийти, приносить/принести, приводить/привести, находить/найти 그룹은 흔히들 불완료상과 완료상 구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간주하곤 하는, ‘행위의 과정 vs. 전체성’의 대립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참고로 Маслов(1948/2004: 74)는 더 나아가 ‘불완료상 vs. 완료상’의 어떠한 동사 쌍도 자신이 분류한 상적 대립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 모두를 만족시키진 못하는데, 이는 러시아어의 상적 대립이 그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단일한 기본적 대립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다 기저적인 일련의 어휘적 기준으로부터 파생되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당연히, 이 경우 상의 의미와 기능은 해당 술어의 어휘의미유형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²⁹⁾

그런 까닭에, 이를테면 공항 등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오시는 동안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고자 할 때, 우리말로는 ‘오다’라는 개념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도착까지의 과정’을 지칭하는 맥락이므로 다음과 같이 한계상(delimitative)의 의미를 전달하는 долететь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도착시점’만을 지칭하는 접두사 при-를 사용할 시에는 도달술어(accomplishments)가 돼버려 위와 같은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1) А: Как вы долетели^{CB}/*прилетели^{CB}?

29) 참고로 Маслов(1948/2004: 71-72)가 제시한, ‘불완료상 vs. 완료상’의 어휘의미적 대립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을 다소 매끄럽진 못하지만 최대한 Маслов 본래의 용어를 사용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행위의 수행, 형성, 전개’의 과정 vs. 준비된 사실, 도약(скачок), 전체성; ② ‘어떤 사실에 대한 경향, 특정한 결과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나 의도 vs. 이 사실의 실제적 실현, 결과의 실제적 도달, 행위의 성공’; ③ ‘어떤 한계에 의해 한정되지 않은 지속성 vs. 행위의 순간성, 알려진 한계에 의해 한정된 지속성’; ④ ‘반복되는 행위의 일상적이고 비한정적인 횟수 vs. 유일하고 일회적인 행위, 한정된 횟수에 의해 반복된 행위’; ⑤ ‘실현의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하여 비한정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행위 vs. 구체적인 경우’.

B: Спасибо, прекрасно.

사실 이러한 어휘의미적 요인에 따른 용례상의 편차는 해당 대상이나 행위를 실제로 지칭하는 것과 관련된, 이른바 ‘외연적(denotative)’ 의미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상은 꾸준한 주관화로 인해 그 기능이 애초의 어휘의미적 영역이나 문법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담화·화용적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다시 말해 애초의 ‘상-내재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외재적’ 기능(이를테면, 상-시제-서법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역시 해당 술어의 어휘의미적 속성으로 인해 그 작용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 주어지기도 한다.³⁰⁾

예컨대, 대략 ‘강권하다’는 의미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완료상 *упросить*는 그 자체의 어휘의미상 요청을 받은 사람에게 의해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만 사용될 수 있어, 아래의 예문 (12)와 같은 맥락에서는 불가하지만(물론, 포괄적 의미의 ‘요청’을 표현하는 *просить/попросить*는 불완료상, 완료상 공히 요청이 거절된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³¹⁾ 반면에 포괄적 의미의 요청을 표현하는 *просить/попросить*는 예문 (13)에서와 같이 1인칭단수현재형이라는 수행적(performative) 맥락에서 사용될 시에는, *прошу*는 보다 ‘개인적인, 친밀한 요청’의 화행을, *попрошу*는 보다 공식적인 레지스터에서의 ‘공적인 요구’의 화행을 표현한다.

(12) *Он упросил^{CB} меня выступить на вечере, но я отказался.

- 30) 사실 본 논문은 주로 러시아어 상 범주 형성과 관련된 문법화를 다루었기 때문에, 상 범주 내적인 기능의 변이와 관련된 주관화적 문법화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문법화의 문제와 관련된 주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기능변이와 관련된 주관화를 굳이 상 범주가 온전히 정립된 이후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간주할 필요는 없으며, Holden(1990: 141-142) 역시 이미 고대교회슬라브어 시기에도 아오리스트와 임퍼펙트가 담화 내에서 각각 전경화/배경화와 관련된 담화·화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 31) 참고로 언급하자면, 이 예문에서 완료상 *упросить*가 불가능한 까닭을, Гловинская (1992: 124-125)는 *упрашивать/упросить*의 짝이 *просить/попросить* 짝과는 달리, 불완료상은 언표내적동사(иллокутив)로, 완료상은 언표효과적동사(перлокутив)로 기능한다는 데서 찾고 있다.

(13-a) Прошу^{HCB/*}/Попрошу^{CB} вас помочь моему сыну.

(13-b) Попрошу^{CB} предъявить документы.

다시 말해, *упросить*는 보다 상-내재적 기능에 충실해 애초의 어휘의미적 동인에 충실한 반면, *просить/попросить*는 그 기능이 애초의 어휘의미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화자 자신의 화행에 대한 양상적(modal) 태도를 표현하는 담화-화용적 기능까지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어 동사 상은 사실 ‘온전히 문법화된’ 범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어휘-문법적 범주에 가까워 담화 내 사건의 연쇄를 축조하는 방식도 영어와 같은 ‘한계상(delimitative)’의 방식보다는, ‘순간상(punctive)’의 방식을 선호한다. 그런 까닭에, *Падучева*(1996: 364)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아래의 (14-a)와 같은 영어문장을 옮길 시에는 (애초 영어의 문장에서는 단순상 *walk*가 사용되었을지라도) (14-b)처럼 행위의 시작을 표현하는 접두사 *в-*, *по-*가 부착된 완료상을 사용해야 한다.³²⁾

(14-a) At sunrise I walked eastward.

(14-b) Когда солнце встало^{CB}, я пошёл^{CB} на восток.

동일한 이유에서, *Падучева*(1996: 364)는 아래의 예문 (15)에 불완료상 *уговаривала*만을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며, 아예 담화 내 내러티브의 진전을 유보하는 *долго уговаривала*를 사용하거나, 혹은 예문 (16)에서와도 같이 완료상 동사 *стать*의 과거형을 더해 *стала уговаривать*와 같은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 Она кинулась^{CB} в кресло и залилась^{CB} слезами. Девушка

32) 사실 *Падучева*(1996: 364)는 이 예문을 필자의 맥락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Падучева*는 러시아어 불완료상은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시작상(ingressive)의 의미에 저항하려는 경향이 강해, 예문 (14-b)에 완료상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사실 이러한 설명은 영어의 단순상을 러시아어 불완료상과 등가로 놓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²уговаривала^{НСВ} её успокоиться. ‘그녀는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고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하녀가 (계속) 그녀보고 진정하라고 설득해줬지만.’

(16) Пришёл^{СВ} мужик в лес, стал^{СВ} дрова рубить. ‘숲속으로 한 사내가 와서는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Падучева(1996: 364)

사실 러시아어의 경우 위와 같은 상의 용례를 보이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언어 자체가 완료상을 사용할 시, 행위의 시작점과 끝점 모두를 균질하게 압축해가는 한계상의 방식보다는, 행위의 시작점이나 끝점 어느 하나에 더 초점을 맞춰 비대칭적으로 압축해가는 순간상의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러시아어에서 담화 내 사건의 연쇄를 표현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은 (특히 사건의 흐름을 한계상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없는 한) 각각의 개별 행위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다 순간상적인 완료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경향은 II장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던 상태성 표지 ‘-ё/-а-’가 사용된 상태-활동술어(States-Activitie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여서, 아래의 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стал глядеть”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17) - Ради бога, извините. Я ведь... я не желал!

- Ах, сидите, пожалуйста! Дайте слушать!

Червяков сконфузился^{СВ}, глупо улыбнулся^{СВ} и стал^{СВ} глядеть на сцену. Глядел^{НСВ} он, но уж блаженства больше не чувствовал.

-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 아, 괜찮으니 그냥 앉아 있으세요! 공연을 좀 들읍시다!

체르바코프는 당황해서, 바보스럽게 한 번 미소를 짓고는, 무대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공연을 보고는 있었지만, 이미 아까와 같은 행복감을 더 이상 맛볼 수 없었다.

(А. П. Чехов, “Смерть чиновника”)

위의 예문에는 ‘당황한 사건’, ‘바보스럽게 웃은 사건’, ‘무대를 바라본 사건’들의 연쇄가 순차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마지막 행위의 경우에도 일견 그냥 глядеть의 완료상 поглядеть를 사용하면 될 것 같지만, 이때의 접두사

по-는 한계상적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까닭에 적절하지 못하다. 또 다른 완료 상 глянуть 역시 일회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적절치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담화 내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건들의 시간전개의 템포가 한계상적 연쇄에 기반한 것이라면 поглядеть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역시 동일한 작품에서 따온 인용문이다).

(18) В антракте он подошёл к Бризжалову и пробормотал:

- Я вас обрызгал. Простите... Я ведь не то, чтобы...

- Я уж забыл, а вы всё о том же, - сказал генерал.

<Забыл, - подумал^{CB} Червяков и поглядел^{CB} на генерала. - Просто говорить не хочет со мной. Надо бы ему объяснить, что я не нарочно...>

막간 휴식시간에 그는 브리찰로프씨에게 다가가 중얼거렸다:

- 제가 선생님께 침을 튀겨버렸네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원했던 게 아니라...

- 나는 이미 다 잊었는데, 당신은 계속 그 이야기군요, - 장군이 말했다.

<잊었다니, 그냥 나랑 이야기하기 싫은 게로구나.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분한테 설명해야 하는데...> - 체르바코프는 잠시 생각하고는 장군을 바라봤다.

(A. П. Чехов, “Смерть чиновника”)

다만 이 경우 앞선 사건 역시 подумать라는 한계상적 동사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점이 중요한데(주지하다시피 불완료상 думать는 그 자체로는 완료상 짝을 가지지 않는 상태술어이다), 이처럼 담화 내에서 사건들이 어떤 시간적 구성에 의해 조직되고 있는가는 러시아어에서 상을 선택하는 데 매우 주요한 기준이 된다.³³⁾

33) 참고로 덧붙이자면, 당연히 поглядеть 형태의 사용이 한계상적 연쇄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완료상들의 연쇄 사이에 поглядеть가 끼게 될 시에는, 그리고 특별히 ‘잠시’나 ‘조금’과 같은 동작류(Aktionsarten)의 의미를 부가하고자 할 시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Чихнул, как видите. Чихать никому и нигде не возбраняется. Все чихают. Червяков нисколько не сконфузился^{CB}. Он достал^{CB} платок, вытер^{CB} лицо, поглядел^{CB} вокруг себя. И тут он увидел^{CB}, что старичок, сидевший впереди него, старательно

IV. 마치며

지금까지 다소 긴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어 동사 상은 그 범주적 속성이 온전히 조명되기 위해서는, ‘범언어적 동사 상 범주를 대표하는 원형적 사례는 러시아어 상’이라는 그간의 다분히 관성적인 연구풍토에서 벗어나, 이 범주가 통상 예단되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문법범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어휘-문법적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슬라브중심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해, 보다 포괄적인 유형론적 관점에서 러시아어 동사 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러시아어 동사 상이 문법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 역시 ‘불완료상 vs. 완료상’ 대립의 형성국면 자체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구조어 단계 이래로 진행된 역사적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면 러시아어 동사 상을 매개로 표현되는, 제반 동사들의 다양한 용례적 분포와 특징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으며, 아울러 동사 상이 관여하고 있는 제 층위들(이를테면, 어휘의미적 층위, 문법적 층위, 담화-화용적 층위 등) 간의 위상관계와 상호작용이 온전히 정립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론 기반의 연구가 이미 어느 정도는 고착화돼버린, 슬라브어중심주의적 연구경향과 유형론적 연구경향 사이의 학문적 소통

вытирал лысину и шею и что-то бормотал. В старичке Червяков узнал генерала Бризжалова.” ‘보시다시피, 재채기를 했다. 재채기를 하는 건 어느 누구한테도 어디에서도 금지되어 있진 않다. 체르바코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고는, 자기 주변을 잠시 둘러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앞자리에 앉은 노인들이 대머리부분과 목을 애써서 닦으면서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체르바코프는 그 노인들이 브리찰로프 장군임을 알아차렸다.’ (А.П. Чехов, “Смерть чиновника”) 이러한 담화의 시간적 구성은 통상 그동안 ‘문맥적 전경(contextual foreground)’(Thelin 1990: 27), ‘문맥적으로 조건지어진 불완료상 과거(contextually-conditioned imperfective past)’(Dickey 2000: 204-208) 등과 같은 용어로 명명되었었는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경우 서슬라브어에서는 불완료상 과거형을 사용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를테면, 다음은 Dickey(2000: 208)가 제시하는 슬로박어의 예로 위의 глядеть와는 동일한 어원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Krta opustila¹ všetka smelost², skrčil³ sa a hl⁴adal⁵ bútl'avý otvor vrby*” ‘두더지가 모든 용감함을 다 잃고는, 고개를 수그린 채 버드나무의 썩은 구멍을 바라보았다’.

의 부재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최동주,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홍택규, 「러시아어 동사 상과 담화응집성: 외적 상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0/2: 21-49, 2005.
- 홍택규, 「러시아어 불완료상과 서법: ‘존재적’/‘전제적’ 용법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18/1: 121-147, 2006.
- 홍택규, 「증거성과 동사범주의 주관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8: 155-190, 2008.
- 홍택규, 「화자와 관찰자의 형상: 문법론적 vs. 서사론적 함의」,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30: 343-378, 2009.
- ГЛОВИНСКАЯ, М. Я., “Русские речевые акты и вид глагола”, *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языка. Модели действия*, М.: Наука, 123-130, 1992.
- КУЗНЕЦОВ, П. С., *Очерки исторической морфолог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1959.
- МЕЙЕ, А., *Общеславянский язык*, Прогресс, 1924/1951
- МАСЛОВ, Ю. С., “Вид и лекс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глагола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Аспектология. Общее языкознание,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71-90, 1948/2004.
- МАСЛОВ, Ю. С., “Роль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перфективации и имперфективации в процесс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славянского глагольного вида”,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Аспектология. Общее языкознание,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445-476, 1958/2004.
- НЕМЕЦ, И., “Генезис славянской видовой системы”, *Вопросы глагольного вида*,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265-275, 1962.
- ПАДУЧЕВА, Е. В., *Семан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емантика времени и вид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емантика нарратива*,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6.

- ПЕШКОВСКИЙ, А. М.,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М., 1956.
- ПЛУНГЯН, В. А., *Общая морфология: Введение в проблематику*, УРСС, 2000.
- BYBEE, J. L.,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1985.
-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London, 1994.
- COMRIE, B.,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DAHL, Östen, *Tense and Aspect Systems*, Basil Blackwell, 1985.
- DICKEY, Stephen M., *Parameters of Slavic Aspect. A Cognitive Approach*, CSLI Publications, 2000.
- HOLDEN, Kyril, "The Functional Evolution of Aspect in Russian", Theilin, Neils, (ed.) *Verbal Aspect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131-58, 1990.
- HOPPER, Paul, "Emergent Grammar", *Berkeley Linguistics Conference (BLS)* 13: 139-157, 1987.
- JAKOBSON R.,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s. Vol. 2. Word and Language*, The Hague, 130-47, 1957/1971.
- JANDA, Laura A., "A Metaphor in Search of a Source Domain: The Categories of Slavic Aspect", *Cognitive Linguistics* 15/4: 471-527, 2004.
- KEHAYOV, P. "Typology of Grammaticalized Evidentiality in Bulgarian and Estonian", *Linguistica Uralica* 38/2, 126-144, 2002.
- KUČERA, Henry, "A Semantic Model of Verbal Aspect",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Nin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Volume 1: Linguistics*, 171-184, 1983.
- LYONS, J., *Semantics. Volume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NOVACK-JONES, Claudia, *The Semantics of Aspect and Aspects of Semantics: A Study of the Verb in Russian, Czech and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1992.
- THELIN, Nils B., "Verbal Aspect in Discourse: On the State of the Art", *Verbal*

Aspect in Discourse, John Benjamins, 3-88, 1990.

TRAUGOTT, E.,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sation",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Linguistic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TRAUGOTT E., & E. KÖNIG,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19*. Amsterdam: John Benjamins, 1991.

VENDLER, Zeno,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 ABSTRACT

Categorial Character of Russian Verbal Aspect: Typological Perspective and Grammaticalization

Hong, Taek-Gyu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analyze categorial character of Russian verbal aspect from the typological perspective. To do this, first of all we will examine the overall historical process of grammaticalization of Russian verbal aspect.

As a result of analysis, we have suggested that against wide-spread general assumptions in this area Russian verbal aspect correspond rather to lexico-grammatical category, than to purely typical grammatical category. Actually, I think this kind of approach as a pivotal point for the study of Russian verbal aspect. For example, this kind of typological approach has great advantages in a sense that firstly it gives us possibility of breaking from notorious routine Slavic-Centrism, secondly it can explain sufficiently and adequately various lexico-semantic usages of Russian verbs. Thirdly, our approach consistently accounts for various interactions of lexico-semantic, grammatical, discourse-pragmatic levels, in which Russian verbal aspect is involved. And finally, it sheds light on functional interactions between verbal categories, such as aspect, tense, and mood.

Key Words

범주적 속성, 러시아어 동사 상, 유형론적 관점, 문법화, 공시적 함의
Categorial character, Russian verbal aspect, Typological perspective,
Grammaticalization, Synchronic implication

논문접수일: 2013. 11. 10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